

민족고전 《중봉집》의 사료적가치

리 진 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은 일정한 역사적 환경속에서 발생발전하여 사람들의 운명개혁과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나 이론, 역사적사실과 유적유물들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고전가운데는 봉건시기에 개별적인 학자, 문인들이 쓴 여러가지 주제와 형식의 시, 산문작품들을 수집정리하여 편찬한 책인 문집들도 들어있다. 문집은 산문과 운문이 함께 실려있으므로 시문집이라고도 한다.

민족고전 《중봉집》은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이름난 의병장이였던 조헌(호는 중봉, 1544—1592)의 시문집이다.

조헌은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원쑤들과의 결전에서 용맹을 떨치고 전사한 애국적인 의병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애국적인 문인으로서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있다. 특히 조헌이 쓴 격문 《의병을 일으켜 왜놈들을 쳐부시자》는 《임진의병장작품집》, 《력대 격문선》 등에 번역소개되어 잘 알려져있다.

그러나 조헌의 저술활동과 관련한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있는 《중봉집》에 대하여서는 전면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봉집》의 사료적가치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중봉집》은 1748년 처음 활자본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20권 10책으로서 저작부분과 부록부분으로 되어있다.

저작부분에는 주로 조헌의 애국적감정을 서술한 시편들과 사회정치적견해 및 당시의 정치적문제들을 서술한 글들, 군사를 강화하여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수호할데 대한 글들,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교육사

업을 개선할데 대한 글들이 들어있다.

부록부분에는 주로 조헌의 생애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글들과 그의 업적을 쓴 글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저자의 가정환경과 성격, 학식 등에 대하여서도 쓰고있다.

《중봉집》의 사료적가치는 첫째로, 선조들의 반침략애국정신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적지 않게 반영되어있어 우리 민족의 애국적기개를 알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반일감정과 민족의식을 구현하고있는 일련의 자료들은 이 책에 들어있는 자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대표적으로 《16개 조목의 글을 올려 제기한다》, 《의병을 일으켜 왜놈들을 쳐부시자》, 《류구, 대마도 일본유민들을 권유하는 글》, 《헌소를 목베여 죽일 죄목에 대하여》, 《의병선서》, 《경상, 전라도에서 왜적을 방비할 대책》, 《왜국사신의 목을 베일것을 청하여 올리는 글》, 《의병을 일으킨 후에 올린 글》, 《청주에서 왜적을 격파한 후 올린 장계의 별지》 등이다.

특히 《의병을 일으켜 왜놈들을 쳐부시자》는 반일애국정신이 반영된 격문의 하나이다. 격문에서는 왜놈들의 간교한 술책과 야수적 만행에 대하여 치솟는 적개심을 가지고 규탄하였으며 승냥이보다 더 포악한 원쑤들은 반드시 멸망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력량을 단합하여 나라의 위험을 구원할 날이 바로 이때가 아니냐! 일생의 지혜를 다 바쳐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싸울 날이 바로 이날이로다. 바라노니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여,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씩씩하고 용감한 무사들을 서로 모아 위험에 처한 이 나라의 문명을 회복하자! 활을 메우고 화살을 끼워 먼저 괴수의 먹통을 겨누어라! 창을 버리고 방패를 갖추어 련속 적의 군마의 발목을 찍어라!》라고 호소하였다.

《의병선서》에서는 나라를 구원하려는 의병들의 애국의 뜻을 잘 보여주고있다. 저자는 여기서 소란을 피우지 말것, 해이태만하지 말것, 대렬을 리탈하지 말것, 남의 물건을 침해하지 말것, 적병을 두려워하지 말것 등 의병규률을 제기하고 오직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나라의 위기를 생각하며 진격만 생각하고 퇴각하지 말며 큰것을 위하여 작은것을 희생시키며 의리만을 생각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글들은 나라의 존망과 관련되는 절박하고도 긴요한 정치적문제들을 제기하였으며 시종일관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는 격동적이며 열렬한 기백으로 일관되어있다.

비록 형식에서는 격문, 소, 장계, 제문, 편지, 일기 등 각이하게 씌여졌지만 호소적이며 강한 주정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조현의 산문들은 읽는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안겨준다.

《중봉집》에 반영된 선조들의 애국정신과 민족적감정은 다른 민족고전들에서보다 더욱 호소적이고 열렬하다.

《중봉집》의 사료적가치는 둘째로, 당시 봉건통치배들의 부패무능성과 특히 왜놈들의 침략적야망을 폭로규탄한 자료를 적지 않게 반영함으로써 해당 시기 우리 나라의 군사정치정세와 역사적사실을 리해하는데서 일정한 도움을 준다는데 있다.

조현은 당시 봉건통치배들의 부패무능성에 대하여 《의병을 일으킨 후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라에서 민심을 굳게 결속시키는데 오직 신하들이 의롭고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언신이 사적으로 대궐창고의 물건을 꺼내어 간사한 시정배들에게 선심을 베풀었으며 임금의 귀와 눈이 되어야 할 문과출신들이 그것을 두루 가리우고 감싸준 결과 김수와 리광이 차례를 뛰어넘어 승급할수 있었습니다. 언신이 권세있는 패거리들을 극력 비호하면서 세력잡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일

을 꾸며 공로를 바라는 무변아전이 재물을 뿌려 적의 목베인 수를 날조하는통에 서레원의 무리가 중죄에서 벗어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몇몇 간신들은 전부 현명한것으로 당시의 칭찬을 받았기때문에 더러는 감사자리에 계속 눌러있기도 하고 혹은 차례를 뛰어넘어 목사, 부사로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김수는령남에서 포악하게 굴어 한 도의 원망을 지지리 샷던자인데 적이 들이닥치자 선참으로 쫓무니를 빼다나니 백성들은 적을 막아볼념도 못한채 온 나라가 화를 입게 만들었으며 서레원은 명색이 용맹스러운 장수였으나 김해로 가다가 지레 놀래여 물러서는 바람에 화살 한대 쏘서 적을 물리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채 한 도가 함락되게 만들었습니다.

리광은 임금이 당하는 근심을 앞세워 생각할 대신에 처음에는 호남의 군사를 거느리고 공주로 가서 먼저 퇴각하였으며 이어 임금의 환난을 구하러 간다고 떠나서는 진위에 도착하여 시일을 지연시킴으로써 남쪽 세도의 군사가 뿔뿔이 흩어져 영영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세사람으로 말하면 언신이 현명하게 여기던자들이며 간악한 무리들이 보배처럼 여기던자들입니다. 앞서 저지른 죄행으로 보면 간악한자와 패거리를 못고 임금을 속이면서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를 그르쳤는가 하면 뒤에 한짓으로 보면 나라의 변란은 본체만체하고 자기 일신이나 보존하려고 부대를 망쳐놓은것입니다.…》

이 글에서 조현은 일신의 안일을 추구하고 나라의 안전은 생각지도 않는 무력하고 비겁한 통치배들의 죄행을 사실자료를 들어가며 신랄히 규탄하고 외세의 간악한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내려는 애국의 지향을 절절하게 토로하였다.

《현재의 폐단을 론하는 글》에서는 백성들의 생활이 바다가운데서 풍파를 만나 방

향을 잃고 해마다가 바야흐로 침몰해가는 배와 같이 령락되어가고있다고 하면서 바로 이러한 사태가 1555년 왜놈의 침입사건(을묘왜변)과 같은 변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썼다.

뿐만아니라 왜놈들이 제기하는 《화친》의 침략적본질을 폭로규탄하고 국방력을 강화할데 대한 대책을 제기하였다. 그는 정규군의 수가 20만을 넘지 못하면 왜적을 방어하기가 어렵기때문에 공신들과 관료들의 노비소유를 제한하고 노비가운데서 건장한 사람들을 군사로 편입시키며 황무지를 개간하여 군량을 마련하도록 하고 10년간 인구를 늘이고 10년간 훈련을 시킴으로써 20년후에 100만의 정예군사를 양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중봉집》의 사료적가치는 셋째로, 애국주의적경향이 뚜렷한 한자시들을 수록함으로써 당시 우리 나라 애국주의적시문학유산을 풍부히 한다는데 있다.

《중봉집》에는 조현이 창작한 100여편의 한시작품이 수록되어있다.

조현의 시작품들에 관통되어있는 애국애민의 정서는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구원하려고 안타까이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눈앞에 방불히 그려볼수 있게 한다.

실례로 시 《가을달이 하도 밝기에》를 들 수 있다.

맑고 고운 가을달 물에서 건져냈나
인간세상 구석구석 살살이도 비치누나
외로운 이 신하에게 못된 사심 있다면
그 빛발 남겼다가 이내 마음 밝혀주렴

천길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나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상소의 길에 나섰다가 오히려 억울한 루명만을 뒤집어쓴 조현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읊은 이 시는 우국충정으로 모대기는 그의 내면세계가 잘 반영된 것으로 하여 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시 《옛책을 읽고 감회에 잠겨》, 《강첨사

에게》(3수) 등에서의 사상정서적지향은 우국의 감정에 토대한 현실비판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고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건져내기 위한데로 두드러지게 지향하고있다.

시 《옛책을 읽고 감회에 잠겨》에서 그는 눈뜨고 차마 볼수 없는 나라의 형세를 놓고 어찌지 못하는 자신을 《어이하여 조선의 부실한 이 선비는 옛책 마주하고 비오듯 눈물짓노》라고 비분에 차서 개탄하였다. 시는 비록 자신에게 국한된 감정으로 형상되었지만 강한 자극성과 호소성을 띠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한편 시 《강첨사에게》(3수)에서는 형식을 달리하여 귀양길에서 고향친구인 강첨사(종3품 무관)를 만난 시인이 위기에 직면한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옛 장수들의 슬기와 담력을 따라배워 잘 싸워달라고 부탁하는것을 담시형식으로 노래하고있다.

시 《벗에게》, 《제목없이》도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는 뜨거운 애국적감정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이밖에도 조현의 시작품들에는 《성거웅의 운을 밝아》, 《인산역에서》와 같이 천대받는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것들과 불의를 증오할뿐아니라 이에 굴하지 않는 승고한 정신세계를 높이 찬양한 시들도 있다.

조현은 이처럼 애국주의적경향이 뚜렷한 시와 산문들을 창작함으로써 당시 우리 나라 애국주의적시문학유산을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중봉집》은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과 저자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일련의 문제점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봉건제도자체를 반대하지 못하고 일부 나쁜 관료들을 교체하거나 징벌하며 불합리한 사회정치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리상적인 봉건제도를 확립하려고 한것이다.

이 책에 실려있는 일련의 글들은 호소성

이 강하고 신랄하지만 신분제도나 노비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개혁하는 방법으로 지나친 봉건적착취와 압박을 일부 완화시키거나 합리적으로 조절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백성들의 생활을 령락시키고 도탄에 몰아넣는 원인을 진상이나 공물, 관료의 악행에서 찾고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생활을 구제하려고 한것, 일반 관리들과 같이 아전들에게도 록봉제도를 실시하여 중간착취현상을 막자고 한것, 관리들의 노비소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국방력을 강화하자고 한것들은 다 그러한 표현들이다.

그것은 또한 옛날의 제도를 숭상하고 《성

인》의 말을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복고주의적이며 사대주의적인 결함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중봉집》에 실려있는 일련의 글들은 그것이 부분적으로 선진적인 사회정치적견해를 반영하고있지만 낡은 봉건유교사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물제도를 숭상하고 내세우고있으며 사대주의적사상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중봉집》은 시대적 및 세계관적 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우리 선조들의 애국사상과 애국정신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적지 않게 싣고있는것만큼 일정한 가치를 가지는 문헌유산이다.